

 인천광역시		보 도 자 료		재외동포청 최적지 인천 뿐입니다	
		배포일자	2023년 4월 10일(월) 총 2매		
담당 부서	글로벌도시기획과	담당자	• 글로벌협력팀장 한창현 ☎440-3481 • 담당자 곽초롱 ☎440-3483		
사진(이미지)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하와이 교민단체 이어 미주한인소상공인총연합회도, “재외동포청은 인천”

- 미주한인소상공인총연합회, 플로리다 정기총회에서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-
- 재외동포 최다 거주 지역인 미주 한인사회에서 하와이에 이은 두 번째 지지선언 -

미주한인소상공인총연합회가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. 이번 지지선언은 지난해 12월 하와이 교민단체의 지지선언에 이은 미주 지역의 두 번째 공식 지지이다.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에 따르면 지난 4월 8일 미주한인소상공인총연합회(회장 장마리아)가 미국 플로리다에서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하였다.

미주한인소상공인총연합회(Korean American Small Business U.S.A)는 미국 내 한인소상공인들의 연합조직으로, 뉴욕, 플로리다 등 미주 전역에 13개 지부를 두고 회원 간 상호교류와 판로 개척, 차세대 소상공인 양성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.

오늘 날 미주 전역에 정착해 있는 6만여명의 한인 소상공인들은 지속

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본업에 성실히 종사하며 지역경제의 침병으로서 미국의 경제·사회적 기틀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.

현재까지 유럽과 하와이, 우즈베키스탄, 홍콩, 라오스, 대만, 카자흐스탄 등 전 세계 재외동포가 인천 유치를 공식 지지한 가운데 재외동포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미주 한인사회에서도 지지를 표명하며 인천시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.

류윤기 시 글로벌도시국장은 “재외동포 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<관련사진> 미주한인소상공인총연합회 지지선언

